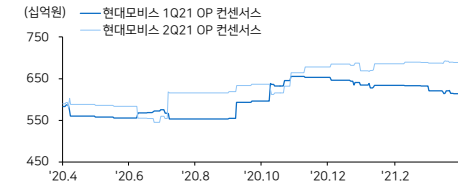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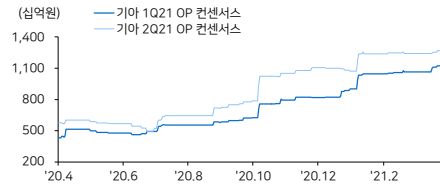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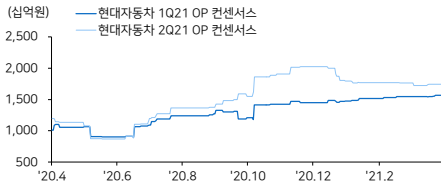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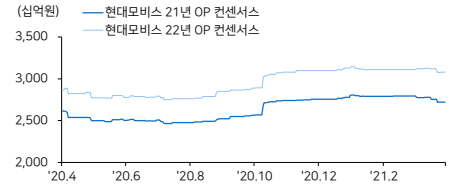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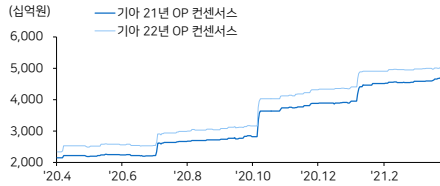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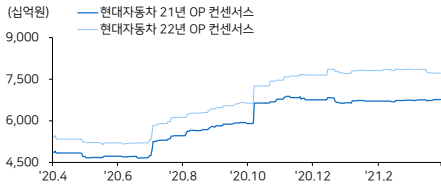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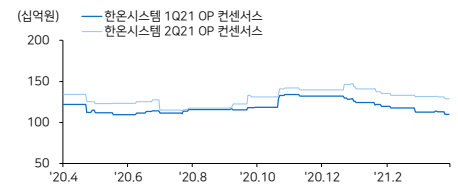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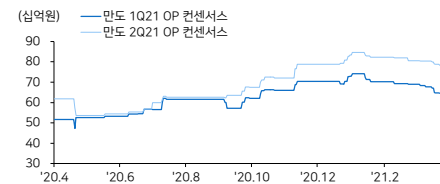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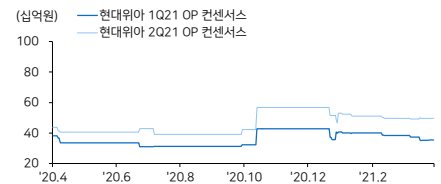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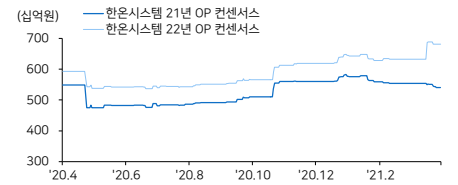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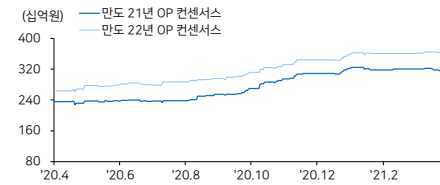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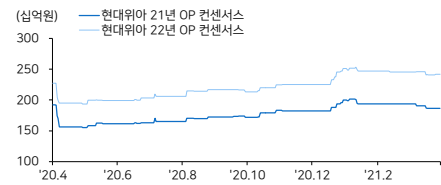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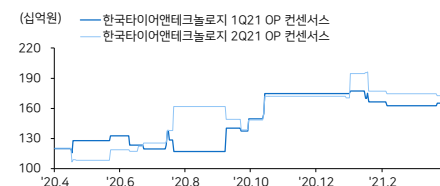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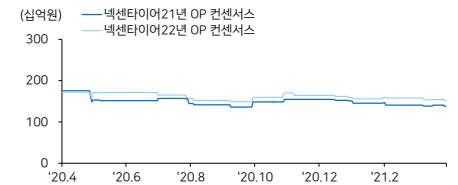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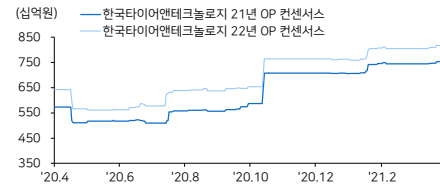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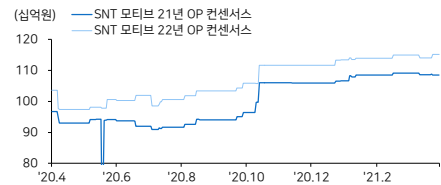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 폭스바겐, '상하이 모터쇼'서 전기차 '격돌' (THE GURU)

폭스바겐이 2021 상하이 모터쇼에서 ID.6 SUV를 공개하며 현대차 아이오닉5와 대결 구도를 형성할. 제원상 주행 성능 면에서는 아이오닉5, 주행 거리 등 효율성은 ID.6가 더 높게 나타나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업계의 평가가 제기됨.
<https://bit.ly/3xbemlZ>

현대모터에버, 3D컨피규레이터 제작...현대차 · 기아 '온라인 견적' 개편하나 (아주경제)

현대모터에버가 구매 견적 기능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3차원(3D) 컨피규레이터를 개발함. SUV의 강세 추이는 10년 동안 대체로 일관된 모습을 보여왔으며 최근 3년에는 그 경향이 뚜렷해짐.
<https://bit.ly/3ejhmf9>

세단에서 SUV로 변경하는 비율 늘어 (IT조선)

세단을 보유한 국내 운전자들이 새로운 자동차를 선택하기보다 SUV로 차종을 변경하는 경향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됨. SUV의 강세 추이는 10년 동안 대체로 일관된 모습을 보여왔으며 최근 3년에는 그 경향이 뚜렷해짐.
<https://bit.ly/2Qaelsx>

BMW, "2030년 전고체배터리 자체 생산" 선언...폭스바겐이어 (글로벌경제신문)

프랑크 베버 BMW 개발대표는 "2030년까지 BMW의 자동차 시리즈에 전고체 배터리를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BMW를 이룰 위해 전고체 배터리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2025년까지 시제품을 선보인다는 계획임.
<https://bit.ly/3arL5JQ>

현대차 '현대 수소 트럭&버스' 사이트 오픈 (파이낸셜뉴스)

현대차는 상용차 수소 비전을 알리기 위한 웹사이트 '현대 수소 트럭&버스'를 오픈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과 '일렉시티 FCEV', 수소대형트럭 콘셉트인 '넵톤'에 관한 정보 등이 게시되어 현대차의 상용수소사업 현황 파악이 가능함.
<https://bit.ly/3au5vSN>

미국 · 유럽에 이어 중국 · 한국도 차량용 반도체 대만 (디지털투데이)

폭스바겐은 반도체 부품공급부족을 이유로 중국 판매량 조정에 들어갔으며, BMW는 중국 생산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함. 국내 역시 현대차 아산공장과 한국지엠 부평공장이 지난 19일부터 가동을 중단함.
<https://bit.ly/3sBtjKL>

머스크 "테슬라 사망자량 자율주행 사용안함" (파이낸셜뉴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인근 스프링에서 발생한 테슬라 차량 충돌 사고에 대해 머스크는 19일 트위터에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테슬라 차량은 당시 준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으로 달리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함.
<https://bit.ly/3x9NPFJ>

바이두, 향후 3~5년내 자동차 100만대에 '아폴로' 자율주행시스템 공급 (글로벌이코노믹)

바이두 리전위 부사장은 상하이모터쇼에서 L4급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아폴로 스마트 드라이빙 시스템을 공개하며, "앞으로 3~5년 내 100만대의 자동차에 아폴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함.
<https://bit.ly/2QmNmIG>

Compliance Notice

본 조차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차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차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